



## 희망적인 미래, 우리협회는 전시용역서비스산업의 **요람**이고 **메카**

제26회 IELA 총회를 유치한 데 이어 전사인의 오랜 염원이던 전시물류단지를 확정하고 사업추진에 들어선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김중운 회장을 만나보았다. 2010 월드컵에서 한국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라 모두가 흥분한 분위기에 힘입어 트레이드 타워에서 김중운 회장으로부터 전시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전사라고 하면 전사주최자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정치나 서비스업체 기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다. 특히 물류 같은 건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주종인 우리 회원사들이 몸집이 상대적으로 크다.” 시종 자신감 넘치는 어투와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포스로 분위기를 압도하지만,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직원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한국 경기를 응원하려 간다고 합류를 요청할 정도로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강원도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초, 중, 고에 이어 대학까지 들어간 후 (주)엑스포로지스 대표이사가 되었다는 이력만으로도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김중운 회장의 삶과 사업에 열정을 가히 짐작케 한다.

**Q** 최근 전시물류단지를 확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가 추진하는 전시물류단지조성에 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26차 IELA 총회유치를 성공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시물류단지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물류단지조성사업은 무엇보다도 회원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도 그 뜻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시산업의 기초산업인 서비스업종의 인프라 구축에 있습니다. 전시장 주변에 전시 관련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시회 전체가 밝아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류단지는 현실적으로 서비스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추진체가 없이 막연하게 진행되어 오던 것을 2009년 7월 물류류단

지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전담할 위원장을 선정하였고, 또 같은 시기에 법률자문과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와 자문단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업무를 추진하여 50여 개 사가 물류단지 참여의사를 밝혔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2009년 12월 후보지 선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천지역과 파주지역이 최종 선정되어 회원사 및 참여사의 투표로 파주지역(약 95,868㎡(29,000평))이 지난 2009년 12월 30일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물류단지조성 사업은 거리, 주변여건, 전시장과의 관계, 비용 등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하는 사업으로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영세한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파주지역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이 계기를 통하여 전시관련 기관 및 정부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제26차 IELA 총회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에 설립되어, 60개국 170개 회원사로 구성된 IELA(International Exhibition Logistics Association: 국제전시물류협회) 총회유치는 제가 회장 취임부터 공약한 사항입니다. 제26차 총회유치 신청은 태국의 방콕과 UAE의 두바이, 그리고 우리가 3개국이 신청하였습니다. 방콕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유치홍보에 나섰으며, 특히 관광장관이 영상을 통한 메시지를 전해 많은 회원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고, 두바이는 부유한 산유국답게 티셔츠 등을 준비하여 유치홍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유치 홍보단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맨투맨으로 하루 30여 개 회원사들과 직접 만나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총회유치의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제26차 IELA 서울총회는 2011년 6월에 4박 5일 일정으로 개최되며, 60개국 170여 회원사 및 동반자 300명 등 4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서울회의 개최로 한국이 국제지위향상 및 국가홍보와 쇼핑, 숙박 등 파생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시산업발전법이 시행되고 MICE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중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번 총회개최는 전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전시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총회유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컨벤션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Q** 국내 전시규모에 비춰 볼 때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가 비교적 늦은 2008년에 출범하셨는데요, 그렇기에 전시관련 협회 중에서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듯합니다. 전시업계가 국내 전시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위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협회는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과 더불어 발족되었으며, 이법 시행이전부터 구성되어 운영해오던 전시주최자나 장치협회보다 늦은 건 사실입니다. 전시에 있어 서비스업의 경중을 나눌 수는 없지만 굳이 표현한다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주최자는 머리고 장치는 몸체이고 그 외의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서비스업종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시라는 것이 주최와 장치, 그리고 서비스가 잘 어우러져서 훌륭한 작품이 나오고 고객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느 특정부분이 잘해서 전시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기에 한 부분의 비중이나 위상보다는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것보다 조화를 이뤄 서로 잘 어우러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Q** 위 질문과 관련하여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의 활동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전시산업이 진정한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요.

우리협회가 설립된 지 2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전시산업발전법 제정에서부터 협회 설립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협회는 전시서비스에 관한 지식 및 선진기술의 조사연구와 정보제공, 전시서비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지도, 전시서비스업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목표로 삼아 전시서비스업의 신기원을 이루고자 창립되었습니다.

협회 창립 후 가장 시급했던 것은 회원사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60여 개의 업종을 유사한 기능끼리 묶어 6개 분과(물류, 렌탈, 시설, IT, 인력, 기타)로 편성하여 체계화하였고, 현재는 140여 개 업체가 협회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처음 목표했던 회원사 확대와 기반조성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협회가 추구하는 전시서비스산업의 신기원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무한질주 할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시산업은 수년 사이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시용역사업자들은 일대 변환기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제도적문제이다, 관행적인 문제다.”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시기입니다. 또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전시개최 흐름을 보면 용역발주 시 주최나 장치 등에 끼어서 발주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자격자가 시공을 하거나 무리한 가격경쟁과 덤핑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업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며 결국은 영세성을 벗어나질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서로 윈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시산업의 발전을 놓고 보면 당장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주자가 먼저 특정분야별 분리발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는 컨소시엄을 통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해야 업체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 또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서비스업종의 전문성 제고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협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입니다. 전시분야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4개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어느 바퀴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 차는 움직이지 못 할 것입니다. 서로 동등한 규모로 있어야 자동차는 바로 갈 것입니다. 협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은 스스로도 확보해야겠지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기한 문제점들과 개선방향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협회가 발족한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업계의 요구사항을 학계와 정부에 전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현재 추진하거나 향후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우리협회는 전시 관련 다른 단체와 다르게 많은 업종이 모여 이루어진 협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고 통합하기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자원이 그만큼 풍부하고 다양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다양성의 힘, 그 통합된 힘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보면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관행처럼 굳어진 국내전시장 등록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협회가 없거나 있어도 그 기능이 미비하여 전시장으로서도 개별 업체들을 선별하여 지정업체로 등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시 관련 4대 단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국제화, 대형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각 전시장이 요구하는 양질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은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2011년 IEIA(국제전시물류협회) 총회개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업종 및 제공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래프 등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참여,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Q** 협회의 사업내용에 포함된 국제화 추진부분은 현재 국내 전 시산업에 관한 국가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동안 정부와 특히 디자인 서울을 강조한 서울시에서 국내 전시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각계의 노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내 전시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일 수 있는 해외전시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 및 분석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한 협회의 입장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전시산업에 있어서 국제화는 이미 진행되었고, 여러 분야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화로 가기 위한 초석은 조성되어 있으며,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도 유례없는 '전시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근간으로 4대 단체가 정식으로 출범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제화는 외형이나 규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단체가 각자의 분야에서 기반을 구축하고 건설해서 그 역량이 결합하여야만 비로소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우리협회는 준비되어 있고 추진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전시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조금 심층적으로 질문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답변보다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시주최자 전시장운영자, 전시장치협회, 전시서비스업체등 관련업체가 상호 협력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힘써야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사)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의 향후 청사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협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전시산업의 메카입니다. 전시주최, 전시장, 장치 등 각자의 분야에서 전시산업의 메카가 되어야 하고, 상호간 서로 존중하며, 가능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며, 그것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면 한국 전시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시주최자나 운영자, 장치협회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상호대립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반목이 생기게 되고 오래간다면 고착화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상호간 설득을 통하여 타협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전시산업도 진일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AKEL**